

월요광장



심옥숙
인문지행 대표

압류된 일상의 배후에 대하여

기에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과학과 의학이 풀어야 할 영역을 넘어, 일상이 왜곡된 저변과 배후에 대한 성찰적 이해 또한 중요하다.

“별이 총총히 빛나는 창공을 보고, 갈수가 있고 또 가야만 하는 길의 지도를 읽을 수 있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하늘의 별빛이 길을 훤히 밝혀 주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헝가리의 철학자 게오르크 루카치(1885-1971)가 쓴 ‘소설의 이론’에 나오는 유명한 첫 문장이다. 그는 어두운 밤길을 가기 위해서 별빛 하나로 충분한 시대가 행복하고 평화로웠다고 말한다. 더구나 이 행복과 평화로움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공정하게 보장되는 것이다.

세계가 마치 자기 집처럼 편안한 안락함을 주는 것은 인간의 내면과 하늘의 별들이 발하는 빛, 즉 인간의 길과 하늘의 길이 서로 일치한다는 믿음과 확신에서 생기는 감정이다. 그런데 지금은 이 행복을 상상하는 것조차 어렵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서조차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집이란 돈으로 사고파는 건축물만이 아니다. 신뢰 관계가 있고, 언제든 돌아갈 곳으로서의 장소, 존

재의 가장 근원적인 조건으로서의 거주하는 곳이다. 다시 말하면 어제의 삶과 오늘의 일상이 무리 없이 이어지는 곳이다.

오늘날 이런 일상성이 더 이상 담보될 수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더 나은 삶의 조건이 경쟁 능력에 있다는 믿음과 확신은 평온한 일상에 필요한 ‘집’의 의미를 거부한다. 그리고 집의 상실은 공유와 공존의 삶에 대한 부정이다. 그래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빛은 이제는 필요하지 않고 세계는 집이 아니라, 두렵고 불안한, 그리고 일상의 가치는 무효화되는 곳이다. 당연하게 배제된 사람들은 위로와 감응을 건네 주는 친절한 속삭임 앞에서 쉽게 마음을 열거나 무너진다.

소외와 왜곡을 통해서 주어진 일상성이 유일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조건임을 다른 작품으로 카프카의 ‘학술원에 드리는 보고’가 있다. 아프리카에서 잡혀 와서 인간의 모습을 강요당하는 원숭이의 이야기다. 이 원숭이는 인간이 준 포도주를 마신 후 ‘페터’라는 이름이 붙여지고 우리에게 간한다. 그 후 페터는 야생의 원숭이가 누리던 일상을 잃고, 인간의 흉내를 내는 것으로 목숨을 부지하

며 강변한다. “저에게는 출구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것을 마련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출구 없이는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살아남고자 하는 페터는 조련사를 통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길들여진다. 원숭이 페터의 말속에서 그가 당한 삶의 왜곡과 상처가 엿보인다. 그런데 페터가 자신의 삶을 상실한 채 다른 사람의 도구와 수단인 되는 모습이 혹시 우리가 처한 현재 상황의 배후에 대한 비유적 표현은 아닐까. 공동체의 안전보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세상과 결속을 지키는 것을 더 중하게 여기는 너무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다. 하지만 손가락질과 증오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다. 이런 의미에서 공동체의 일상은 공유의 일상이다.

모두가 속히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그 일상에는 많은 문제와 과제들이 들어 있을 것이다. 어쩌면 불신과 분노, 기피와 배제, 거부와 외면의 모습이 더 거세질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함께 갈 먼 길이니, 서로의 내부에 더 많은 심연을 만들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社說

다중 접촉 업무 종사자 마스크 우선 지원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서 시내버스 및 택시 기사, 요양 보호사 등 다수의 시민들과 접촉하는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마스크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마스크 구매를 1인당 2매씩으로 제한하는 5부제를 시행하면서 전체 생산량의 80% 이상을 공적 마스크로 지정해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버스승승사업조합은 지난주로 예정됐던 마스크 공급을 이번 주로 미뤘다. 생산업체 여기저기에 문의를 해 봤지만 품귀 현상으로 마스크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조합 측은 지난 1월 3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일급 차례에 걸쳐 한 번에 2000개에서 1만 개까지 모두 4만 2280개의 마스크를 10개 회사 2500명의 기사들에게 제공해 왔다. 40일간 1인당 평균 16.9개를 지급한 것인데 2-3일에 한 장씩이나 턱없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버스 기사들은 마스크를 이틀 이상 사용하거나 가족들이 구매한 공

적 마스크로 버티고 있다고 한다. 조합 측은 오늘까지 최대한 물량을 확보해 공급한다지만 제대로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

택시 업계도 마찬가지다. 광주택시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초 마스크 1만 2000장을 택시 기사 3300여 명에게 제공했는데 한 사람당 네 장꼴이다. 광주 지역 요양원 등에서 활동하는 7만여 명의 요양보호사들도 마스크는 물론 손 소독제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시내버스와 택시 업계는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사태로 이용객이 크게 줄면서 직격탄을 맞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 한 번에 2000개에서 1만 개까지 모두 4만 2280개의 마스크를 10개 회사 2500명의 기사들에게 제공해 왔다. 40일간 1인당 평균 16.9개를 지급한 것인데 2-3일에 한 장씩이나 턱없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버스 기사들은 마스크를 이틀 이상 사용하거나 가족들이 구매한 공

꼼수에 꼼수로 맞서 민심 잡을 수 있겠나

민주·진보 진영 시민단체가 추진하는 4·15 총선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인 ‘정치개혁연합’(가칭)이 어제 출범했다. 앞서 정치개혁연합은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어서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상당수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 ‘비례대표 연합정당’ 창당이 필요하다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당에 참여를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전 당원투표(74.1%, 17만9096명 찬성)를 통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범여권 정당의 참여를 설득 중인데 이와 함께 정치개혁연합 외에 ‘시민을 위하여’(가칭) 등 비례 연합정당 추진체 간 통합 문제도 고민 중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 정의당은 이미 비례연합정당 불참을 선언했으며 민생당은 내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민주당 외곽에서 범여(汎輿) 비례정당을 추진하는 세력은 ‘정치개혁연합’과 ‘시민을 위하여’ ‘열린민주당’ 등으

로 갈라져 있다.

이번에 민주당이 전 당원투표로 민주진보 개혁 진영의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는 비판적인 여론이 우세하다.

미래통합당의 비례용 위성 정당 창당 ‘꼼수에 또 다른 꼼수’로 맞선 것일 뿐이라는 비판이다.

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 참여로 미래통합당과 그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원내 1당 확보 시도를 저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물론 원내 1당을 뺏기지 못한다는 절박한 심정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자기모순에 빠진 이런 해법으로 과연 민심을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미래통합당의 반칙에 대한 응징이라도 이처럼 꼼수에 꼼수로 대응하는 방식은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례에서 몇 석 더 얻어내는 몰라도 지역구에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계도 구력도 다 잃을 수 있다는 얘기도

꿈꾸는 2040

또 다른 감염병, 경기 침체에 대비하자

맞물려 돌아간다. 한국만 호황을 누리기도 어렵고 한국만 단독으로 경기 침체를 겪는 것도 흔하지 않다.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의 차질이 심히 우려되는 대목이다.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세계 경제 위기는 수요가 줄어 경기 침체가 발생했지만, 공급 부족 사태로 생산량이 줄어 경기 침체가 일어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

높아지는 위기의식 속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감염병이 사라질 때까지 마냥 웅크리고 있을 일은 아니다. 코로나로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지만, 속수무책 무너지는 지역 경제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나올까봐 두렵다.

광주 광산구에서는 개학 일자에 맞춰 어떻게 지역 상권을 살릴지 고민하고 있다. 경적대 있지 않고, ‘지역 경제 살리기’를 위해 감염병과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이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경기 침체’라는 감염병을 극복하기 위해 ‘CDEF’ 이론을 주장한다.

‘CDEF이론’은 ‘Corona19, Deflation, Economic recession, Fight against Corona19 with citizen’의 앞글자를 따왔다. 코로나19 장기화와 팬데믹은 물가가 떨어지고 경제 활동이 정체되는 현상인 디플레이션(Deflation)을 초래하게 된다. 기업 활동 둔화와 생산고용 감소는 통화량 부족을 일으켜 경기

침체(Economic recession)의 우려를 낳는다. 고로 시민과 함께 집단 지성의 힘을 모아 코로나와 맞서 싸우는(Fight against corona19 with citizen) 전략이 필요하다. 보통 2분기 이상 마이너스 성장이면 경기 침체라고 하는데, 우리는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았다. 2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역에서부터 수요 증대를 위한 경제 살리기를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CDEF이론의 핵심이다.

근 교과가 개혁하면 집단생활이 시작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개원하고 운영이 중단됐던 복지시설과 도서관도 다시 열릴 것이다. 더 이상 집단생활을 피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동안 학습된 습관으로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고, 집단 시설의 방역 소독도 더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는 시작적인 것이다.

지역 경제 살리기는 이때를 맞춰 치밀하게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수입이 중단됐던 문화예술인들을 골목 상권과 결합시켜 문화 공연을 활성화하고 골목 경제를 살려야 한다. 골목 가게들은 철저한 방역 소독을 통해 시민들을 안심시켜 계속 밖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 공공 행정은 잠시 중단했던 공공 예산 집행을 신속히 실행하여 시중에 돈을 풀다. 중앙 정부도 세금, 국제 등의 자금을 투입하고 공적 수요를 늘려 고용, 민간 소비 등을

늘리는 정치 정책인 ‘재정충동(財政充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생활의 모든 것을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려 놓되, 일상의 습관과 관습을 바꾸는 노력도 중요하다. 브레인파크의 박동완 대표는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자’라는 글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세태에 대해 한탄하면서도 코로나 이후의 삶을 어떻게 리디자인할 것인지를 주장한다. “바이러스는 도시의 집중과 밀집의 산물이다. 나라의 구조와 개인의 삶을 개조해야 한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집중에서 분산으로, 대형 마트에서 골목 가게로, 도시 독점에서 도농 상생으로, 치료에서 예방으로, 성장에서 생명으로 가는 것이 앞으로의 방향인 것 같다”

지금까지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감염병이 초래한 경제 위기를 앞두고 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코로나19는 결국 치료될 것이고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완벽하게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불황의 변곡점에서 제대로 된 처방을 내리지 못한다면 경기 침체라는 낯이 어려운 또 다른 감염병에 걸릴 수도 있다. 부작용이 없는 치료제는 없다. 어떠한 병든 초기에 잡아야 빨리 치유될 수 있다. 약간의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과감하게 처방하는 것, 정치 지도자들이 결단해야 할 일이지 않을까.



차승세
위인연구원 이사

인문 사회, 안정적 학술활동 기반 조성 절실하다

차 산업 혁명에서 콘텐츠의 부재는 도태를 의미한다.

학술 연구의 생태계 복원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 프로세스를 위하여 안정적인 학술 활동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당면 과제가 있다.

첫째, 학술 분야의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인문 사회 분야에 대한 예산 배정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학술 분야 예산 편성에는 원칙이 없다. 그때그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하는 임기응변식 예산 편성이 반복되고 있음이 이를 말해 준다. 그동안 기초 학문에 해당하는 인문 사회 분야의 예산은 계속 축소되어 왔다. 예측 가능한 예산 편성 원칙의 부재가 부른 결과다. 그 원칙으로 인문 사회 분야의 연구 예산을 국가 연구 개발(R&D) 전체 예산 대비 2.5%는 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최근 5년간 국가 R&D 예산은 연평균 6.7% 증가한 데에 비하여 인문 사회 분야는 1.2% 증가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하여 2020년 기준 국가 R&D 예산 중 인문 사회 분야 순수 연구 예산은 1.2%에 불과하다. 원칙 없는 예

산 편성이 지속된다면 머지않아 1% 미만으로 떨어지고 말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둘째, 학문 후속 세대에 대한 연구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인문 사회 분야의 학문 후속 세대는 미래의 학문을 이끌어 갈 신진 연구자로서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국가가 보호해야 할 인재들이다. 이들의 대한 투자를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할 이유이다. 이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마련한 학술 교수 제도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연간 300명에게 4000만 원을 5년 지원하는 것에서 연간 500명에게 5000만 원을 7년 지원하는 형태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셋째,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 사업에서 인문 사회 분야에 일정 비율을 할당해주어야 한다. 교육 혁신, BK사업 등 특수 목적 지원 사업비를 배정할 때 인문 사회 분야에 일정 비율의 할당이 필요하다. 일반 재정 지원 사업비를 대학별로 배정할 때에도 인문 사회 분야에 최소 30% 정도 선에서 배정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넷째, 정부의 국책 연구 지원에서 반드시 5% 이상의 인문 사회 분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국책 연구가 이공 분야의 융합 연구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 때문에 국책 연구 과정과 결과에 대한 법적, 윤리적, 사회적 가치와 함축적 의미에 대한 연구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과학 기술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위험은 기술이 말해 주지 않는다. 과학 기술과 인문 사회의 융합과 협력이 곧 국가 경쟁력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모든 국책 사업에서 인문 사회 분야의 학술 연구가 5% 이상 독립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인문 사회 분야에는 민간 투자가 거의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더라도 국가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인문 사회 분야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한국이 추격형 국가에서 선도형 국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인문 사회 분야는 앞으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문 사회 분야의 안정적 학술 활동 기반이 확보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기 고



류재한
전국국공립대 인문대학협의회 회장
전남대학교 인문대학장

대한민국 인문 사회 분야의 연구와 교육의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다. 박사급 연구자들은 생존의 위협 때문에 대학을 떠나고 있고 연구자의 꿈을 키우는 학생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인문 사회 분야의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는 학술의 기둥으로 지어진 집이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의 한쪽 기둥이 무너지고 있다. 조속히 바로 세워야 할 때다. 인문 사회 분야의 학술 연구는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해주고, 사회적 갈등을 협력과 소통으로 해결하는 길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미래 기술에 콘텐츠를 제공한다.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이끌어갈 4

無等鼓

고통은 인간이 성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제 가운데 하나다.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역경을 이겨 냈다는 공통점이 있다. 위인들 중에는 특히 유배와 수감이라는 역경을 헤쳐 온 이들이 많다. 강제로 힘든 고립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유배와 수감은 그러나, 세상과의 절연을 통해 본래의 자신과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하다.

다산 정약용은 유배지 강진에서 ‘목민심서’ ‘흄흄심서’ 등 500여 권의 책을 저술하고 조선 후기 실학사상을 집대성했다. 비록 유배의 몸이었지만 다산의 사유는 다양한 경계를 넘나들었다. 지식에 대한 교육도 소홀히 하지 않았는데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를 통해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우리는 폐족이다. 폐족이 글을 읽지 않고 꿈을 바르게 행하지 않는다면 어찌 사람 구실을 하라.”

80년 신군부의 법정에 의해 사형까지 언도받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 또한 생사를 넘나드는 극한 속에서도 독서와 묵상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당시 깨알 같은 글씨로 쓴 편지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는데, 특히 용서와 사랑에 대한 글이

유명하다. “진정으로 관대하고 강한 사람만이 용서와 사랑을 보여 줄 수 있다. 항상 인내하고, 우리가 우리의 적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

얼마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가 공개됐다. 국정 농단으로 탄핵을 당하고 수감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진심 어린 사죄를 한 적이 없다. 더욱이 코로나 사태로 온 나라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며 사실상 총선 개입 의도를 비쳤다. 유배와 감옥은 일신의 자유를 억압하지만 한편으로 성장의 촉매제가 되기도 한다. 다산은 유배지의 방울 사의제(四宜齋)라 명하고 ‘생각은 맑게, 용모는 단정하게, 말은 과묵하게, 행동은 진중하게’를 생활신조로 삼아 정진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시련 속에서도 늘 ‘행동하는 양심’을 지향했다. 그러나 한때 ‘선거의 여왕’이라 불리던 박근혜는 여전히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는 듯하다.

/박성천 문화부 부장 skypark@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政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1(일간)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국문 신청 배달 안배))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52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4 체 육 부 220-0621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세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